

『東武遺稿·知風兆』를 통해 본 이제마의 군사학적 배경이 그의 의학 사상에 미친 영향

¹최성운, ²황지혜, ³김남일

¹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²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³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Influence of the Military Background of the Lee-Jema on His Medical Thoughts through 『Dongmuyugo·Jipungjo』

¹Choi Sung-Woon, ²Hwang Jihye, ³Namil Kim

¹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²Dep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³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We compared the texts of the two types of military books, 『Mubiji』 and 『Yungsalyujeom (戎事類占)』. In this research, it is proved that Lee-Jema transcribed a segment on martial mantic in 『Mubiji (武備志)』 which is a book on military studies and named it 『Jipungjo (知風兆)』 since he had practical interest in military affairs. Lee-Jema had been serving as a military officer when his peculiar thought was beginning to unfold and maintained his interest in military affairs until his latter years. It is necessary to take a military studies based approach to comprehend Lee-Jema's thought since military affairs had great influence on his life.

Key words : 『Dongmuyugo』, 『Jipungjo』, Lee-Jema, a book on military studies, interest in military affairs, 『Longevity & life preservation in oriental medicine』 『Discourse on Nature and Order』

I. 서론

『東武遺稿』는 李濟馬(1837~1900)의 의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사와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을 이제마의 후학들이 모아서 편찬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필사된 필사본 1책이 전해져 온다.

이제마의 의학적인 업적과 사상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東武遺稿』에 수록된 의학과 연관성 없어 보이는 다양한 분야의 글에 대해서 이제마가 쓴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발굴된 장서각 『東武遺稿』는 1999년 이창일에 의해서 한글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그 책의 해체에 따르면 『東武遺稿』 중에서 「外交論 - 一名東洋平和策」, 「相牛方」 등에 대해서 동무의 저

술이 아닌 글이 『東武遺稿』에 수록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東武遺稿·知風兆』에 대해서도 실제 이제마의 필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서 본고에서는 무관 출신인 이제마의 군사학과 병서에 대한 관심과, 이제마가 저술한 『格致彙·儒略』의 내용을 통해서 그의 군사학적 사상이 단순한 군사학적 내용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세론적 차원으로 확장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같은 이제마의 군사학적 사상 배경은 이제마가 실제로 『東武遺稿』의 「知風兆」를 필사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知風兆」의 바탕을 이용한 점술적인 내용이 조선 시대 군사학에서 필수적인 지식이었으며, 이제마가 『武備志』 「占風」에서 발췌해 필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知風兆」의 내용 전반이 수록된 2종의 전문 병서, 『武備志』와 『戎事類占』과의 조문 비교 작업을 통해서, 실제 「知風兆」의 저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서인지를 찾아

가는 과정이다. 추가적으로 「知風兆」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이후 이창일 역주의 판독본에서의 오류를 찾아내어 수정하고자 한다.

「知風兆」의 필사오류에는 단순히 필사자의 개인적 차원의 실수나 지식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마가 살아냈던 조선말의 군사·행정·점술적 문화로부터 단절되어 발생하는 구조적 측면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된 이제마의 사상에 대한 해석들의 한 단면을 조명하고자 한다.

「知風兆」는 추후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까지 발전되어 그의 의학 사상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제마의 의학 사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군사학적 측면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연구임을 밝힌다.

II. 본론

1. 「知風兆」의 내용과 필사자 논란

「知風兆」는 바람을 통해서 전투에서의 승패 여부와 길흉을 점치는 내용이다. 「知風兆」의 28조를 보면, “세찬 바람이 때 지어 일어나며 속도가 일정치 않은 것을 敗風이라 하는데, 적병이 크게 패하고 내가 뛰어난 전공을 거두게 된다.”¹⁾고 되어 있다. 바람의 세기나 형태를 파악하고, 바람에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 어떠한 징조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바람의 조짐을 살피는 방법론이나 특정한 바람이 불었을 때 전투에서 吉兆를 얻거나 凶兆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知風兆」의 내용은 군사학 중에서도 점술에 관련된 것이다.

언뜻 보기에 사상의학의 창시자로 주목받는 이제마와 군사학적 점술에 대한 「知風兆」 사이의 관련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이제마의 의학적인 업적과 사상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東武遺稿』에 수록된 의학과 연관성 없어 보이는

다양한 분야의 글에 대해서 이제마가 쓴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1999년 이창일에 의해서 한글로 번역되어 새롭게 출판된 장서각 『東武遺稿』의 해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마의 저술이 아닌 글이 『東武遺稿』에 수록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外交論 - 一名東洋平和策」에 대해 “이 편은 일본인이 지은 것으로 동무의 저술이 아니다.”²⁾, 「相牛方」에 대해 “『동무유고』와는 관계가 없는 글처럼 보이지만, 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남겨 두었다.”³⁾ 등의 표현이 나온다. 이와 함께 「知風兆」에 대해서도 “이 편을 동무가 썼다고 주장할만한 흔적은 필사 원문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동무가 象을 보아(점을 쳐서) 병든 사람을 진찰하고 그 경과를 살핀 기록이 남아 있으니, 동무는 점에 대한 불신이나 無用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⁴⁾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知風兆」의 이제마 필사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2. 이제마의 군사학적 배경

조선 시대의 무과 과거시험에서는 무예 실력을 평가하는 실기 시험뿐만 아니라, 武經七書나 『兵要』, 『將鑑博議』 중 하나의 병서를 택해서 치르는 이론 시험인 講書를 보았다.⁵⁾ 무과에 급제 이후 실제 무신 생활에서도 인사고과 시험과목 중 하나인 『兵學指南』과 『陣圖』과 같은 병서에 대한 내용 숙지는 필수적이었다.⁶⁾ 또한 무인들의 최종적인 목표인 將軍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과목인 武經七書を 비롯한 兵學 전체에 대해 해박한 것이 유리했다. 유교 경전과 글짓기로 본인의 능력을 드러내는 문신들과 같이, 무신들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병서였다.

실제로 무신 출신인 이제마에게 있어서 사유의 주된 원천 중 하나는 兵書일 수밖에 없었다. 무신으로서 이제마는 전투를 지휘하는 將軍으로서의 입신양명을 꿈꾸며, 방대한 병서에 대한 깊이 있는 탐독을 통해 사상적 기반을 다졌다.

이제마의 군사학적 사상에 대한 깊이는, 『格致藁』의 첫 편인 「儒略」의 첫 번째 글인 「事物」의 맨 첫머리에 나오는

1) 迅風作陣, 急緩不均, 曰敗風, 賊兵大敗, 我收奇功. 『東武遺稿·知風兆』 28조

2) 이창일의 주장대로 「外交論」은 이제마의 저술이 아니다. 이제마 저. 이창일 옮김. 『『東武遺稿』 해제』 『東武遺稿』. 성남:정계출판사. 1999:35.

3) 상계서 p. 41-42.

4) 상계서 p. 40

5) 『大典會通·兵典·試取』

6) 『大典會通·兵典·試取·別試』 [射講] “[추가 조문] …… 강서로는 『兵學指南』을 펴놓고 읽는다(臨文). ○ 『陣圖』를 책을 보지 않고 내용을 암송한다(背誦). (補 …… 講書兵學指南, 臨文. ○ 陣圖, 背誦.)”

용어들인 “一身”, “一心”, “萬身” 및 “萬心”⁷⁾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구절들은 『紀效新書』라는 병서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구절이거나 이를 변형한 것이다.⁸⁾ 『紀效新書』는 군사학과 군사 관련 제도에서 핵심적인 서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의 전술, 훈련 및 편제는 모두 이 책에 의거하고 있다.⁹⁾

이제마가 인용한 『紀效新書』의 해당 부분에서는 병사 하나하나의 마음과 몸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단순한 산술적 집적을 넘어서는 집합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¹⁰⁾ 이창일에 의하면 이제마는 글의 처음에 제시한 문장을 보충·변형해나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나가기 때문에, 이제마가 쓴 처음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기술된 문장들을 이해할 수 없다.¹¹⁾ 필자는 이창일의 주장이 「事物」이라는 하나의 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여러 글이 모여 성립된 하나의 편인 「儒略」과 『格致藁』라는 책 전체에까지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儒略」에서도 첫 번째 글인 「事物」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와 같은 주제는 「儒略」뿐만이 아니라, 『格致藁』 전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紀效新書』를 인용한 이제마의 『格致藁』 「儒略·事物」은 단순히 군사학에 국한된 내용만으로 볼 수 없다. 어떻게 정치가들의 혹은 백성들의 힘을 모아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을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16세기 말 이후 조선 사회에서 군사학을 利用厚生의 입장에서 사회 제도 개혁의 주요한 이론으로 쓰는 학술적 풍토와 맞닿

아 있다. 군사학의 권모술수적인 담론이 『論語』나 『孟子』에서 시작되는 유가적인 군사학 담론과 접합되면서, 모든 군사적 제도들이 사회, 경제 및 제도적 차원의 개혁(利用厚生)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다.¹²⁾

결국, 이제마는 병서에 대해 단순히 군사학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군사학을 넘어선 사회 개혁론과 정책학적인 ‘경세론’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마의 사상과 저술 전반에는 경세론으로 확장된 군사학에 대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사상과 저술을 유교 경전과 의학 등으로 한정 짓는 것은 불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3. 「知風兆」의 저본 : 『武備志』

1) 「知風兆」와 『武備志』, 『戎事類占』간의 조문 비교

조선 후기에 조정에서 간행한 병서를 보면, 군사학에서 점술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元代의李克家에 의해 편찬된 군사 전문 점술 서적인 『戎事類占』이 영조시기에 조선에서 금속활자로 재간행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밖에도, 송대 종합병서인 『武經總要』(1044)의 총 40권 중에서 필수적인 내용만을 뽑아 7권으로 축약된 『武經節要』라는 병서가 조선에서 간행되었는데, 이 중의 한 권이 점술 관련 내용이었다. 이러한 점술에 관

7) “한 개의 몸이 행한다. 하나의 마음이 깨닫는다. (...중략...) 만 개의 몸이 떴 지어 모인다. 만 개의 마음이 함께 한다.(一身行也, 一心覺也, (...중략...) 萬身群也, 萬心聚也.)” 李濟馬 著, 韓斗正 편집, 『儒略·事物』, 『格致藁』, 昭和15(1940). 2. 번역, 강조 및 밑줄은 필자

8)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역[地]에서 태어나고 병사들이 비록 (서로 다른) 갖가지 무술[術]을 갖고 있으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膽氣는 몸속에 갖추어져 있고, 이치는 마음(心)에 갖추어져 있으며, 마음은 氣를 거느려서 제어하니[統御], 기가 마음에 의해서 쓰임을 당하는 이치가 결코 똑같지 않은 적이 없는 것이 명확하다. (마음의) 맑은 것은 더 성해지게 하고, (마음의) 탁한 것은 잘 구제해서, (각 사람마다) 강하고 약한 것을 마치 한 사람과 같이 만들고, 만 명의 사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장수의 도리이다.(人生雖殊地, 兵中雖多術而膽具于身, 理具于心, 心統于氣, 氣當乎用則未嘗不同澄之. 使清激之, 使濁濟, 強弱爲一人, 合萬人爲一心, 將之道也.)”, “(개별적인) 만 명의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각각 사람마다의 개별적인) 마음이 하나로 되면 기(氣)가 가지런하고 질서정연해지며, 기가 가지런해지고 질서정연해지면 **만 명의 사람(萬人)이 죽음을 무릅쓴 한 명의 사나이**가 되는 것이다. 이는 내가 한마음이 된 만인의 힘으로 (하나로 뭉치지 못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만 명의 (분산된) 힘을 가진 (통합되지 못해 제) 각각인 마음을 대적하는 것이니, 죽음을 무릅쓴 한 사나이로 하여금 저 (분열된) 만 명의 생명과 겨루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萬人一心, 心一而氣齊, 氣齊而萬人爲一死夫. 是吾以一心之萬力而敵萬力之各心, 以一死夫, 以拒彼萬生命.)”, “혹자는 또 말하기를 ‘만 명의 사람이 각기 혼자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다. 그러나 **만 개의 몸**이 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합하여 백만근(600톤)의 힘과 기운이 되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或者又曰萬人要他一心, 此理之當然. 但萬箇身合爲一箇身, 合爲百萬斤力氣, 吾所不省也.)” 戚繼光.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편, 『膽氣篇』, 『原感召』, 『遵節制』, 『紀效新書 下』, 國防軍史研究所. 1998:1, 9-10, 18. 번역과 표점, 강조 및 밑줄은 필자

9) 허대녕, 「임진왜란 전후 조선의 전술 변화와 군사훈련의 전문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국문초록ii. 16-19. 21. 23-29. 50.

10) 洪乙杓, 「明後期 戚繼光의 戰法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913:113. 戚繼光. 『紀效新書 上』, 서울:국방군사연구소. 1998:24. 戚繼光. 『紀效新書 下』, 서울:국방군사연구소. 1998:7. 戚繼光 著, 유재상 訳, 『紀效新書(上)』, 서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1:38. 戚繼光 著, 유재상 訳, 『紀效新書(下)』, 서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3:35. 참조

11) 이창일은 이와 같은 이제마의 전형적인 서술방식을 “擴充法”이라고 부른다. 그는 擴充法에 대해 “네 글자를 一句로 하여 四句를 한 문장으로 삼았고, 그 다음은 그대로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문장을 확충하거나 보충·변형하는 다양한 변조를 통해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을 취한다. 『동의수세보원』과 『격치고』는 처음 문장을 이해하거나 머리에 기억하지 않으면 나중의 문장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창일, 「한성문고 소장 『東武遺稿』에 대하여 - 문헌 성립 考定과 2차 삽입된 <東武自註> 검토를 중심으로」, 장서각. 1999:(2):131-162.

12) 이익, 홍대용, 이덕무, 정조, 정약용 등에서 이와 같은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홍백, 「병서(兵書)를 읽는 두 가지 방법 -조선 중후기 병서 비평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 2014:54(54):243-260.

런된 병서들을 통해서 조선에서 군사학적 점술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明代の 茅元儀(1594-1640)가 저술한 총 240권의 방대한 백과사전 성격의 군사 서적인 『武備志』 역시 조선으로 수입되었다.¹³⁾ 『武備志』는 군사학의 제반 분과 영역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어서, 조선에서 군사학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서적으로 사용되었다.¹⁴⁾ 조선에서는 『武備志』의 점술 관련 내용만 필사한 『武備誌各占抄略』가 간행되었으며, 이 책의 존재 역시 당시 군사학적 점술에 대해 중시하였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앞서 말한 군사 전문 점술 서적인 『戎事類占』과 방대한 성격의 군사 서적인 『武備志』에 「知風兆」의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음에 착안하여, 「知風兆」와 『戎事類占』, 『武備志』와의 조문 비교를 통해서 그 저본이 되는 군사 서적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창일 역주, 藏書閣 『東武遺稿』’에 수록된 필사본 원본과 판독본의 「知風兆」를 기본 텍스트로 하였다. 『戎事類占』은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에서 영인한 北京大學圖書館 소장 明抄本 『戎事類占』을 참고하였으며, 『武備志』는 규장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상에 공개한 明 初刻本인 『武備志』(奎中 3660)을 참고하였다.

실질적인 작업은 「知風兆」 조문 전체를 비교하였으나, 본고에서는 「知風兆」의 저본을 밝히기 위해 1조, 3조, 12조, 42조만만 수록했다. 결론적으로 이 작업을 통해서 「知風兆」는 『戎事類占』이 아닌, 『武備志』를 저본으로 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다.

■ 『東武遺稿·知風兆』 1조

「知風兆」 1조 : ㉠凡風之體, 大抵海體積陰, 通於地氣, 氣出成風而赤黑. 近山風大而 ㉡沈暄, 近海風大而昏黑. 軍 ㉢來埃興, 馬行塵起. 旋風作於一時; 暴風起於百里; 細風及于一方. 亦自然之理, 不主休咎.

『武備志』 : ㉠凡風之體, 大抵海體積陰, 通於地氣, 氣出成風而赤黑. 近山風大而 ㉡沈暄, 近海風大而昏黑. 軍 ㉢聚埃興, 馬行塵起, 旋風作於一時, 暴風起於百里, 細

風及于一方, 亦自然之理, 不主休咎.

『戎事類占』 : ㉠海體積陰, 通於地氣, 氣出成風而赤黑. 近山風大而 ㉡沈暄, 近海風大而昏黑. 軍 ㉢聚埃興, 馬行塵起, 旋風作於一時. 暴風起於百里, 細風及于一方, 亦自然之理, 不主休咎.

먼저, 『東武遺稿』 「知風兆」 1조는 “風之體”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을 보면, 「知風兆」의 “凡風之體, 大抵”는 『戎事類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타나는데, 「知風兆」의 해당문구가 『戎事類占』에서 인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그림 1).



그림 1. 좌부터 「知風兆」, 「武備志」, 「戎事類占」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凡風之體”는 이어서 나오는 「知風兆」의 “凡風天候” 즉 바람이 불기 전에 나타나는 조짐과 대비되는 주제로 바람의 발생 원인과 특성에 대한 설명에 해당 된다. 이 단락의 글이 처음으로 기재된 책이 元代의 『戎事類占』이지만 “凡風之體”의 구절이 이 책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明代의 『武備志』에 처음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武備志』의 저자인 茅元儀가 『戎事類占』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체계를 잡기 위해 추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를 보면, 「知風兆」 필사본 “沈暄”의 “暄”가 판독이 쉽지 않은데 「知風兆」 판독본에서는 “沈暄”으로 판독되어 있다. 그러나 『戎事類占』, 『武備志』 모두에서 “沈暄”로 기재되어 있고, 「知風兆」 필사본의 원문 또한 “暄”보다는 “暄”에 가까운 자형으

13) 趙娜. 「茅元儀 『武備志』 研究」. 華中師範大學 博士論文. 2013:42-43.
茅元儀는 明의 무신으로 해이해진 武備를 직접 경험하고 여러 차례 강병책을 상소했으며, 兵家書와 術數書 200여 종을 모아 15년간 연구하여 『武備志』를 저술했다.

14) 조선에서는 청의 기병을 막기 위해 戰車를 활용하는 방안이 계속해서 제안되어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도는 1737년에 조선에 『武備志』가 도입된 뒤, 『武備志』에 소개된 다양한 종류의 전차와 제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종류의 전차가 개발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했다. 노영구. 전개서. 178. 186.

로 기재되어 있어서 “沈暄”로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을 보면, “士”의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大”의 형태로 되어 있는 “沈暄”보다는 “沈暄”에 가까운 자형이다(그림 2).



그림 2. 「知風兆」

㉔를 보면, 「知風兆」의 “來”는 다른 모든 책들에서 “聚”로 적혀 있다. “來”와 “聚”는 글자의 모양이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마가 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그가 이미지로 사유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그는 필사를 하던 저본 원문의 “軍聚埃興”을 읽으면서 자신이 군생활 중에 경험했던 모의 전투 훈련¹⁵⁾에서 모의 적군을 추격할 때 일어나던 흙먼지의 광경을 떠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신이 떠올린 이미지에 맞추어 한자를 기입해 가는 과정에서 “軍聚埃興”의 “聚” 대신 “來”로 기입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제마가 엄밀하게 문헌의 자구에 매달리기보다는 문장을 통해 자신이 떠올린 이미지를 통해 사유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그림 3).



그림 3. 「知風兆」

15)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는 각 단위부대별로 집단 전술을 구사하는 陣法을 위주로 하는 군사훈련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군사 훈련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국왕이 親臨하는 閱武로, 국왕의 공격 명령을 받은 군영이 다른 군영을 추격해서 공격하여 그 부대의 지휘기인 認旗를 뺏어오는 군사훈련이었다. 이제마는 1879년에 武衛所를 비롯한 한양의 모든 군영이 참가해 벌인 모의 전투 훈련에 참가했으며, 閱武를 위해 부대별로 행해졌던 모의 전투 훈련 연습에서 “軍聚埃興”과 연관된 광경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이다. 閱武에 대해서는 노영구, 「조선후기 漢城에서의 閱武시행과 그 의미 -大閱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008;32(32):11, 17-18. 참조함. 『承政院日記』 고종 16년 윤3월 21일 갑오(1879년) 기사 “春塘臺, 親臨瑞慈臺, 式年文武科殿試試取”와 『日省錄』 高宗 己卯年(1879) 四月初三日 기사 참조.

16) “雲腳”은 중국어로 “낮게 드리워 있는 구름. 구름발.” 혹은 “움직여 가는 구름”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는 이어져 나오는 구절이 “雲行急”으로 ‘구름의 움직임’에 대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또한 “雲腳黃”이라고 해서 그것이 누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낮게 드리워 있는 구름”으로 번역했다.

■ 「東武遺稿·知風兆」 3조

「知風兆」 3조 : ㉔ 凡風天之候, 若衆鳥噪空 ㉕ 翻飛, 羣魚出水跳躍, 星動 ㉖ 撓日月昏暈, 雲片片相逐, 慘白慘黃, 聚散不常, 雲繞日, 雲腳黃, 雲行急, 日光搖, 太白晨見, 參宿動, ㉗ 燈火 ㉘ 燄作聲, 皆 ㉙ 是.

『武備志』 : ㉔ 凡大風之候, 若衆鳥噪空 ㉕ 翻飛, 羣魚出水跳躍, 星動 ㉖ 搖日月昏暈, 雲片片相逐, 慘白慘黃, 聚散不常, 雲繞日, 雲腳¹⁶⁾黃, 雲行急, 日光搖, 太白晨見, 參宿動, ㉗ 燈火 ㉘ 燄作聲, 皆 ㉙ 是.

『戎事類占』 : ㉔ 凡大風之候, 若衆鳥噪空 ㉕ 翻飛, 羣魚出水跳躍, 星動 ㉖ 搖日月昏暈, 雲片片相逐, 慘白慘黃, 聚散不常, 雲繞日, 雲腳黃, 雲行急, 日光搖, 太白晨見, 參宿動, ㉗ 燈火 ㉘ 燄作聲, 皆 ㉙ 大風之候.

「知風兆」 3조에서는 “風之候”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㉔부분은 「知風兆」에서는 “凡風天之候”로 되어 있어 번역이 난해하다. 반면에 『武備志』에서는 “凡大風之候”라고 기재되어 있다. 「知風兆」의 “凡風天之候”가 『武備志』의 “凡大風之候”를 잘못 전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㉙를 보면, 『戎事類占』에서는 “凡大風之候”의 구절이 단락 첫머리에 없고, 단락 맨 끝부분에 “大風之候”가 나온다. 『武備志』에서는 “凡大風之候”가 첫머리에 처음 등장하고, 단락 끝에서는 “是”로 대신한다. 이것은 『武備志』 다음 단락의 첫머리가 “凡候風之法”으로 시작하는 것과의 유사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武備志』의 편저자인 茅元儀가 『戎事類占』의 원문에 “體” 등의 용어를 통해 體用論이라는 이론적인 틀을 부여하고, 서술 체제상의 동일성을 드러내며, 각 단락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문에 변형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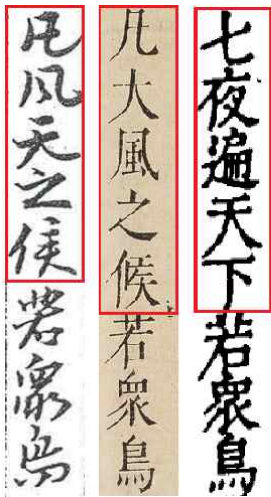


그림 4. 좌부터 「知風兆」, 「武備志」, 「戎事類占」



그림 5. 좌부터 「知風兆」, 「武備志」, 「戎事類占」

㉑에서 「知風兆」의 “飜”은 『戎事類占』에서 “飜”으로 쓰였고, 『武備志』에서는 “翻”으로 쓰였다. 「知風兆」의 “飜飛”는 『戎事類占』를 저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반면, “飜”과 “翻”는 이체자이기 때문에 『武備志』의 “翻”을 “飜”으로 썼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㉒에서 「知風兆」의 “擣”는 다른 모든 판본에서 “搖”로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의 “擣”와 “搖”의 조선어 한자음이 “요”로 동일하기 때문에 발생한 “搖”의 잘못된 전사로 보인다. “擣”와 “搖”가 중국어 발음으로는 각각 “náo”와 “yáo”이기 때문에 중국어 필사자라면 발음도 다르고 뜻도 다른 두 글자를 혼용했을 가능성이 낮다.

㉓에서 「知風兆」의 “燈”은 다른 모든 판본에서 “燈”으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知風兆」에서는 이를 속자로 표기한 것이다.

㉔에서 「知風兆」의 “燄”은 『戎事類占』에서는 “焰”으로, 『武

備志』에서는 “燄”으로 표기되었다. 이를 통해서 「知風兆」의 본 단락이 『戎事類占』에서 인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그림 6).



그림 6. 「戎事類占」

■ 「東武遺稿·知風兆」 12조

「知風兆」 12조 : 啾唧慘 ㉑懼者爲病風, 爲疾疫大喪.

『武備志』 : 啾唧慘 ㉑懼者爲病風, 爲疾疫大喪.

『戎事類占』 : 啾唧慘 ㉑懼者爲病風, 爲疾疫大喪.

㉑ 부분은 「知風兆」와 『武備志』에서 “懼”으로 일치한다. 반면에 『戎事類占』에는 “懼”로 되어 있다. 따라서 「知風兆」 12조는 『武備志』를 저본으로 삼는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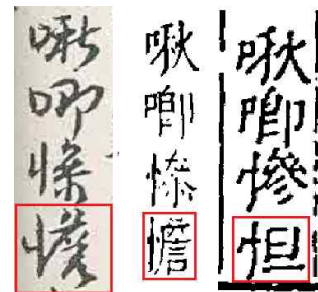


그림 7. 좌부터 「知風兆」, 「武備志」, 「戎事類占」

■ 「東武遺稿·知風兆」 42조

「知風兆」 42조 : 凡行軍道逢急風甚雨, 沾濕人馬行步, 不利出軍¹⁷⁾, ㉑或連日有霧, 風聲錯亂, 密雲不雨, 皆防下人有謀.

『武備志』 : 凡行軍道逢急風甚雨, 沾濕人馬行步, 不利出軍, ㉑或連日有霧, 風聲錯亂, 密雲不雨, 皆防下人有謀.

『戎事類占』 : 凡行軍道逢急風甚雨, 沾濕人馬行步, 不利出軍. ㉑

17) 해당조문은 『戎事類占』에 “凡行軍道逢急風甚雨, 沾濕人馬行步, 不利出軍”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武備志』와 『太白兵備統宗寶鑑』에는 『戎事類占』의 조문 뒤에 “或連日有霧, 風聲錯亂, 密雲不雨皆防下人有謀.”가 추가되어 있어서 「知風兆」와 동일하다.

㉓ 부분에서 「知風兆」 원문의 “或連日有霧，風聲錯亂，密雲不雨皆防下人有謀.”는 『戎事類占』에는 없는 구절이다. 『戎事類占』에 “凡行軍道逢急風甚雨，沾濕人馬行步，不利出軍”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武備志』에는 『戎事類占』의 조문 뒤에 “或連日有霧，風聲錯亂，密雲不雨皆防下人有謀.”가 부가되어 있다. ㉔ 부분을 통해 『戎事類占』을 저본에서 배제하고, 이로부터 「知風兆」의 42조가 『武備志』를 저본으로 삼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상의 조문 분석을 통해서 『武備志』가 「知風兆」의 저본일 가능성에 대해 계속 언급해 왔다. 「知風兆」 1조, 3조, 4조와 41조에는 『武備志』와 동일한 문구가 존재하지만 유독 『戎事類占』에만 해당 문구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知風兆」의 39조와 40조는 『武備志』에서는 존재하지만, 『戎事類占』에서는 해당 조문이 없다. 이와 같은 증거를 통해 『戎事類占』이 「知風兆」의 저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知風兆」의 12조 조문을 보면, 『戎事類占』, 『武備志』에서 각기 다른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가운데, 오로지 「知風兆」와 『武備志』의 한자만 일치하고 있으며, 42조 조문에서도 『武備志』의 조문만이 「知風兆」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武備志』가 「知風兆」의 저본이 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다.

2) 「知風兆」의 필사 오류 고찰

이제마가 『武備志』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제마의 친필 「知風兆」 수고를 일제강점기의 필사자가 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옮겨 적는 실수를 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知風兆」 3조의 “搖”를 “撓”로 바꾸어 전사한 것은 훈이 서로 다른 두 한자의 조선어 발음이 “요”로 동일하기 때문에 혼동하여 잘못 필사한 단순한 오류에 해당되고, 26조문처럼 “土”를 누락한 부분 등이 단순한 필사 오류에 해당된다.

한편, 1조문의 “來”의 경우 다른 병서에서는 “聚”로 쓰인 부분이며, 두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이를 통해 이제마가 필사의 과정에서 단순히 글자를 한 글자씩 그

대로 옮겨 적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글을 읽고 떠올린 이미지를 한자로 옮기는 방식의 ‘이미지를 통한 사유’를 했음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또한 38조문 “次”를 “日”로 필사한 것은 이제마 혹은 후대의 필사자가 의미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쳐서 필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와 같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제마의 사유 방식에 대해, 추후에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을 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는 별도로 후대의 필사자가 이제마의 친필 수고를 옮겨 쓰는 과정에서 지식의 한계로 인해 혹은 제대로 내용 이해를 하지 못해 잘못 필사한 경우가 존재한다. 「知風兆」 45조문의 “隨歸”가 『武備志』에서는 “檣歸”로 되어 있는데, 『武備志』는 『孫子』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조선의 군사·행정 관료체계 속에서 “檣歸”는 원래 “해이하게 퇴각하다”, “지쳐서 돌아가다”, “맥없이 돌아가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군사·행정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孫子』가 무과의 시험과목 중 하나였으며,¹⁸⁾ 이제마가 「陳情」에서 『孫子』를 인용한 예¹⁹⁾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마에 의한 필사오류가 아니다. 일제강점기의 필사자가 이제마 필사본의 “檣歸”를 “隨歸”로 바꿔 적은 것은 조선관료사회의 소멸로 인해 행정용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檣歸”라는 단어와 그用例의 출처인 『孫子兵法』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0조문의 “獲”을 “護”로 바꿔 필사한 것 역시 부분적으로는 “資糧”이라는 조선시대의 군사·행정용어가 사어화되어 일제강점기의 필사자가 「知風兆」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 후대의 필사자가 초서나 행초로 흘려 썼을 때 서로 유사하게 보이는 한자들의 자형을 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드러낸다. “獲”을 “護”로 판독한 경우, “得天之助護，敵資糧”으로 표점을 찍고 “資糧”을 “적군이 양식을 보태주고”²⁰⁾ 등의 ‘동사+목적어’로 이루어진 서술어로 읽게 된다. 그러나 “資糧”은 명사²¹⁾로, 조선시대에 “資糧”은 ‘군수물자’나 ‘군량’ 등의 군사용어와 ‘노자와 식량’ 혹은 ‘식량’을 의미하는 행정용어 및 일반적인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의 필사자는 이제마가 속해 있었던 군사학 및 행정학적 언어

18) “武經七書”는 중국의 대표적인 일곱 가지 兵書로 『孫子』, 『吳子』, 『司馬法』, 『尉繚子』, 『李衛公問對』, 『三略』과 『六韜』이다. 武科의 시험과목으로 무술실력을 겨루는 武藝와 講書가 있었는데, 이 중 講書는 覆試에서 사서오경 중 하나, 무경칠서 중 하나, 『通鑑』·『兵要』·『將鑑博議』·『所學』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經國大典』과 함께 모두 네 가지 책을 시험과목으로 선정해 시험치게 된다. 한국문화대사전 간행위원회, 『한국문화대사전』 제3권, 553쪽.

19) 이제마는 「陳情」에서 『孫子』 「始計」의 구절인 “대저 싸우기 전에 작전 회의에서 이기는 사람은 승산을 얻음이 많다(夫未戰而廟算勝者，得算多也.)”를 변용하여 “廟算之得多”로 인용한다. 손무 원저. 박일봉 편저, 『일봉 손자병법(개정판)』, 서울:육문사, 2011:33. 번역은 일부 수정.

20) “得天之助護，敵資糧”으로 표점한 것과 “敵資糧”을 “적군이 양식을 보태주고”로 번역한 것은 이창일에 의한 표점과 번역이다. 이제마, 『東武遺稿』, 387.

사용관행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필사상의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또한 「知風兆」 8조문의 “吉”을 “先”으로, 30조문의 “熱”을 “勢”로, 37조문의 “來”를 “末”로 바꿔 필사한 것 역시 후대의 필사자가 「知風兆」를 군사학적 점술의 맥락에서 읽는데 실패해서 나타난 필사오류이다. 현행 「知風兆」의 글자로는 이들 조문의 해석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데, 이 필사오류들 역시 후대의 필사자가 군사학적 점술이라는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 채 흘림체로 된 자형을 판독하는데 급급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이제마의 非儒學的이고 非醫學的인 내용에 대해 나타나는 체계적인 누락 혹은 독해의 실패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이제마에 대한 이해의 틀에 대해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필자는 그 이해의 틀이 이제마의 사상에 대한 유가철학적 접근의 담론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의학사적 검토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창일 역주의 판독본에서도 판독과정에서 보이는 오류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어 그에 대해 바로 잡으려 하였다. 판독본에서는 9건의 오류가 보이며, 필사본 원본에서 보이는 필사 과정에서의 23건의 오류와 5건의 누락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록에 수록하였다.

4. 「知風兆」와 이제마

이제마는 조선 후기의 군사학적 전통을 계승하여, 바람에 대한 점술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武備志』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 의해 간행될 정도로 중요한 군사 서적으로 간주되었던 『武備志』에서 이제마가 抄錄한 내용이 바람에 대해 점을 치는 「占風一」이었고 이에 대해 「知風兆」라고 새롭게 이름 붙였던 것은, 조선말의 군사개혁 및 이 흐름 위에서 진행되었던 이제마의 무관·무신 생활을 통해 고찰되어야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 후기에 군사적 점술에 관한 지식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군사학의 한 분야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저술된 종합병서적 성격을 지닌 『演機新編』, 『武臣須知』, 『武備要覽』 및 『戎書撮要』와 같은 모든 서적에서 점술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중 『戎書撮要』(1867)는 병인양요(1866) 직후에 서양세력의 침략에 맞서 조선의 군사 개혁을 주도해나갔던 군수뇌부의 일원에 의해 저술되었으며, 당시 군사 개혁 주도세력의 핵심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²²⁾ 18세기 이후 조선군 화약 병기의 약점이 바람에 대한 취약성이었기 때문에,²³⁾ 『戎書撮要』에서는 바람에 대한 점술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火攻風候」, 「逐月暴風日」 및 「風雨賦」를 군사 서적을 포함한 다양한 서적들로부터 수록했다.

이제마는 조선의 군사 개혁이 한창 진행되던 중인 1871년에 군수뇌부의 일원이던 북병사 김기석과 조우한 뒤²⁴⁾ 1876년에 무위소 별선군관으로 군생활을 시작하여, 조선의 근대적 군사 개혁을 담당했던 통리기무아문에서 參謀官으로 복무했다. 대단히 특정하고 구체적인 군사학적 사항에 대해 이제마가 드러내는 관심은, 조선의 첫 근대적 근대인 교련병대가 창설되던 1881년 당시에 개항장인 원산항에서 그가 일본군사들에게 서양식 군복의 방탄력에 대해 집요하게 정보를 캐내는 필담을 남겼던 사실에서도 확인된다.²⁵⁾

『東武遺稿』에서 그가 서양식 소총과 군복에 대해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갖고 관심을 표명했던 것은 조선 군부에서 진행되던 군사개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1881년부터 조선군과 무기체계의 근대화가 시작 되었지만 1880년대 말까지도 여전히 조선군의 주된 개인화기는 바람에 취약한 재래식 화승총과 銃筒인 상황이었다. 1889년 여름에 함경도 명천부의 조선군 무장 실패를 보고한 러시아 육군 중령은 병사들이 구식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명천부사만이 자신이 소유한 러시아의 베르당식 엽총을 자랑스럽게 내보였지만 그마저도 탄약은 없었다고 기록했 정도였다.²⁶⁾

결국, 병인양요 이후의 조선군 수뇌부에서 화약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시 조선군의 주된 개인화기였던 화승총과 銃筒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바람을 비롯한 기상현상의 예측과 관련된 점술을 널리 수집했던 시대적 상황이

2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량”에 대해 “자재와 양식을 아울러 이르는 말” 및 “여행에 쓰는 비용과 식량”이라고 풀이한다. (할 것)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검색일 : 2019. 7. 3.)

2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戎書撮要』(청구기호 한古朝76-34). 「戎書撮要序」, 7-8.

23) 노영구. 「조선후기 兵書와 戰法の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144. 157-158. 김진수. 「조선후기 鳥銃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군사연구. 2015:139:459. 본문과 주13).

24) 1871년에 이제마와 김기석이 서로 조우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東武遺稿』 「陳情」과 「遊蹟」에 대한 후속논고를 통해 밝힐 것이다.

25) 이제마 저. 「辛巳五月元山港問答」,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25-127. 151-154.

26) 육군 중령 베벨리. 「조선 북부 여행기」, 카르네프 외 4인. 김정화 옮김. 『내가 본 조선, 조선인』. 서울:가야넷. 2003:331.

이제마가 「知風兆」를 필사하는데 대해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제마의 「知風兆」는 그의 절실한 군사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필사된 것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군사학적 점술을 말하는 「知風兆」의 내용이 이제마의 관심사와는 무관하며 이제마가 옮겨 적은 글이 아니라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

5. 이제마의 의학사상에 군사학이 미친 영향

『格致彙』 「天勢」 편에서는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 나오는 天機의 내용(天時, 世會, 人倫, 地方)을 국가의 운영(42조목: 經國之規模)²⁷⁾이라는 정치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²⁸⁾ 「天勢」 편에서는 이 중 「성명론」의 “天時”에 대응되는 용어로 “天勢”와 “天機”가 사용된다. “天勢”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서로 임기응변(權變)해가며 상대방을 거꾸러뜨리려고 다룰 때, 악한 자를 임기응변에 의해 쓰러뜨리는 것’을 가리키는데(2~5조목: 權變萬術. 權變爭詰. 爭詰相傾. 天勢傾惡也)²⁹⁾, 이것은 지혜를 통해(6조목: 傾惡之勢, 行智之勢也) 가능하다.

지혜의 획득방법에 대해 설명할 때는 “天機”가 사용된다. 변화하고 지혜로운 자는 天機의 변화상을 보는데(30조목: 天機恒轉, 智者見轉), 변화가 많은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13조목: 多變, 智也), 天機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보존한다(31조목: 天機恒轉, 智者存智). 늘 변화하는 天機를 보고 지혜를 보존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갖 임기응변이 하늘을 온통 뒤덮을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빈틈없이 살피는 사람은 [하늘을 뒤덮은 임시방편을 보고] 임기응변하는 것이다(15조목: 萬權蔽天, 周察者, 用機).

이를 정리하면, 이제마는 온갖 임기응변이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나타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항상 天機를 관찰함을 통해 하늘로부터 얻은 임기응변을 사용하여 악한 자를 쓰러뜨린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운영이

라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제마가 지칭하는 天機가 무엇이나는 것이다. 이제마는 天機를 통해 “징조(機)”와 “때(時)”를 얻는다고 말한다.

23 징조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산처럼 움직이지 말고, 때가 이르렀으면 칼과 같이 결단하라.(機若未達, 不動如山. 時若來到, 能決如劍.)

24 징조가 조심스럽고 천천히 해야 한다면 무엇을 도모할들 완전하지 않겠는가? 용감해야만 하는 때라면 어딜 간들 얻지 못하겠는가?(機若詳緩, 何圖不全. 時若必勇, 何往不得.)

天機를 관찰함을 통해,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 가만히 있어야 할 때와 그리고 칼 같이 결단하여 용감하게 나아가야 할 때를 판단할 수 있다. 이제마가 필사한 「知風兆」에는 이와 관련된 구절이 나온다.

“군대가 대규모로 성채에서 나갈 때 맞바람이 불어온다면, 바로 진영을 갖추고 진을 쳐서[結營] 머문 채 기다리다가[守候], 바람이 지나간 뒤에 출발하고[啓行], 다시 저들을 살피서, 가령 三冬에 적이 乾方에 있는데 바람이 서북쪽으로부터 (아군에게 맞바람으로) 불어오면 공격해서는 안 되니, 八方의 바람 또한 이에 따른다(兵大舉出城, 逆風未³⁰⁾, 卽結³¹⁾營住守候, 過後啓行, 更審彼方, 假令三冬敵在乾³²⁾, 而狂風從西北來, 則不可攻, 八方之風準此³³⁾.)”

“세찬 바람이 때 지어 일어나며 속도가 일정치 않은 것을 敗風이라 하는데, 적병이 크게 궤하고 내가 뛰어난 전공을 거두게 된다(迅風作陣, 急緩不均, 曰敗風, 賊³⁴⁾兵大敗, 我收奇功.)”

인용된 구절들은 이제마가 「天勢」에서 국가의 운영과 연관하여 “天勢” 혹은 “天機”를 언급하며, 변화하는 상황마다 끊임없이 임기응변(權變)하여 악한 자를 쓰러뜨리는 것을

27) 여기서 언급하는 조목의 번호는 이제마 저. 박대식 역주. 『格致彙』. 성남:청계출판사. 2000에서 매긴 조목번호이다.

28) 1조목의 “天勢浩濶. 世會紛競. 人倫蕃殖. 地方廣濶.” 상계서. 101.

29) 이것은 각 조목의 첫 번째 구절만을 모은 것이다. “術”은 “피, 술수, 책략”을, “爭詰”은 “서로 다투어서 힐난함.”을 말한다.

30) 「知風兆」 필사본에는 “未”로 기재되어 있으나, 『戎事類占』, 『武備志』 모두 “來”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來”의 뜻으로 번역한다.

31) 「知風兆」 필사본에는 “結”로 되어 있고, 『戎事類占』, 『武備志』 역시 “結”로 되어 있다. 「知風兆」 판독본에서는 이것을 “統”으로 잘못 판독했다.

32) 「知風兆」 판독본에서는 표점을 “逆風未卽統營, 住守候過後, 啓行更審彼方. 假令, 三冬敵在乾”으로 찍었으나, 본고에서는 『武備志』를 따른다.

33) 「知風兆」 판독본에서는 본고의 37조와 38조를 하나의 조문으로 묶었으나, 『武備志』에 근거하여 이를 둘로 나누었다.

34) 「知風兆」에서는 “賊”으로, 『武備志』와 『戎事類占』에서는 “敵”으로 되어 있다.

가리키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여 임기응변하는 지혜를 얻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제마의 「天勢」에 나오는 天機는 바람을 통해 얻게 되는 징조를 가리키며, “하늘의 징조”로 번역될 수 있다.

이제마는 바람을 통해 나타나는 天機를 관찰해 지혜를 얻기 위해 「知風兆」를 필사했다. 그가 「知風兆」를 통해 얻은 지혜는 『格致藁』 「天勢」 편에서 추상화되어 이론적 언급으로 나타난다.

「知風兆」를 통해 살필 수 있는 天機는 동시대의 天機의 의미와 일치한다. 이제마가 활동하던 당시에 天機는 “하늘의 의도” 혹은 “하늘의 뜻”의 의미를 지녔다. 개항 후 조선에 들어와 활동하던 서양인 기독교 선교사 게일이 1897년에 조선사회에서 天機가 “하늘의 의도(the purpose of Heaven)”³⁵⁾이라는 뜻으로 통용되는 것을 기록했듯이, “하늘의 의도”는 『格致藁』 「天勢」에서 天機를 관찰하여 징조를 읽어내는 것과 연결된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국가의 대소사 및 민간의 일상사에 있어서 길한 날짜와 방향을 선택하고 흉한 날짜와 방향을 피하는 “選擇”의 문화가 널리 성행했다.³⁶⁾³⁷⁾ “選擇”은 1866년의 병인양요 때 조선군이 김포에서 적이 주둔하고 있는 강화도로 침투하는 작전개시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데까지 활용될 정도로³⁸⁾로 군대를 비롯하여 사회 전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選擇”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서적이 『天機大要』로, 여기에 담긴 選擇에 관련된 음양오행의 術數이론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관상감에서 네 차례에 걸쳐 개정증보되어 간행될 정도로 널리 활용되던 국가에서 공인된 지식이었다.³⁹⁾ 이때의 “天機”는 “하늘의 기밀” 혹은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格致藁』 「天勢」에서 바람의 기세를 관찰해 하늘의 뜻을 읽어내는 것과 통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이제마가 『格致藁』 「天勢」에서 추상적으로 서술한 “天勢”와 “天機”가 「知風兆」의 구체적인 점술 내용과 연결되며, 특히 “天機”의 경우 동시대의 일반인들이 사용했던 의미와도 통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마는 「知風兆」를 필사하면서 얻은 天機에 대한 개별적 지식을 총괄하여 『格致藁』 「天勢」의 “天勢”와 “天機” 관련 내용을 저술한 것이다.

『格致藁』 「天勢」의 “天機”는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天時”로 사용되었고, 「天勢」의 “天勢”는 「性命論」에서 “天機”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天機” 및 “天時”에 대해 『格致藁』 「天勢」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知風兆」와의 연관성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格致藁』 「天勢」와 「知風兆」간의 연관성이 드러났으므로,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天時”에 대해 「知風兆」가 기반하고 있는 군사적인 점술과의 연관성 속에서 고찰할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天時”는 병서에서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병자호란 이후에 저술된 조선의 병서 『演機新編』(1660)에서 실제적인 전술과 전략을 다루는 中篇에는 “天時”라는 제목 하에 징조를 통해 길흉을 따지는 陰陽論적 術數에 대해 총론적으로 다루고 있다.⁴⁰⁾ 마찬가지로 조선의 병서인 『武備要覽』⁴¹⁾(1855)과 『戎書撮要』(1867)⁴²⁾에서도 「天時」라는 제목 하에 징조를 통해 길흉을 따지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武備要覽』 「天時」의 내용을 예로 들면, 오행의 상승상극에 대한 징조를 望氣를 통해 파악하여⁴³⁾ 이

35) “던기 天機 s. the purpose of Heaven” 게일. 『韓英字典한영사전(A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Kelly & Walsh, 1897:699.

36) 이수동. 「조선시대 陰陽科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208.

37) 한국고전종합DB. 『選擇要略』 해제. (남종진 해제).

38) 출정일시에 대한 審時는 병인양요 때 양헌수 장군이 김포에서 강화도로 도강작전 계획을 세우자, 길한 작전 날짜와 시간을 찾고 그 時日에 작전개시를 하는 예를 들 수 있다. “이현규가 말하기를 ‘이번 길은 영감께서 주장한 일이니 상마일시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일 오시가 좋겠습니다.’라고 하니 곧 29일 그믐날이었다. 29일. 오시에 말에 올라……(李鉉奎曰 此行令監爲主將, 上馬日時不可不審也. 今日午時爲吉云 卽二十九晦日也. 二十九日 午時 上馬……)” 양헌수 저. 김원모 역. 「[자료]병인일기의 연구」. 사학지. 1983;17(1):205, 223.

39) 김만태. 「역서(曆書)류를 통해 본 택일문화의 변화」. 민속학연구. 2007;20:18-19.

40) 『演機新編』 中篇의 “天時”에서는 術數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소개가 주류를 이룬다. 안명로 저. 유재성 역. 『演機新編』. 서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0:249-251. 그러나 저자인 안명로는 凡例에서 “天文·時日·陰陽卜筮의 법은 대개 미묘하고 심오하므로 성인이 잘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병가에서는 대부분 이를 실제로 썼으므로 버릴 수가 없다.”라고 적어, 술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그리고 총 3편으로 이루어진 『演機新編』 중 下篇은 아예 내용 전체가 術數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자가 술수에 대해 큰 강조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번역은 안명로 저. 유재성 역. 『演機新編』. 서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0:60. 번역은 일부 수정.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演機新編』. 「凡例」. p17.(창구기호 古貴692-9)에서 관독.

41) 趙禹錫 저. 『武備要覽』. 서울:일조각. 1982:403-407.

4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戎書撮要』 卷之五. 「天時」. 45-48. (창구기호 復古朝76-34).

43) “운기를 관찰하는 자는 운기로 승패의 조짐을 예측하여 대장에게 알린다. 적의 운기를 관찰하여 쇠하면 공격하고, 운기가 왕성하면 군대를 멈추고 더불어 싸우지 말아야 하니, 이것을 일러 천시에 따른다고 한다.(望氣者, 以氣勝敗告于大將觀賊之氣衰則進攻氣旺則止兵勿與戰此之謂順天時者.)” 趙禹錫 저. 『武備要覽』. 서울:일조각. 1982:406-407. 해당구절은 『虎鈴經』에서 인용한 것이다. 번역은 허순영. 「『虎鈴經』 試論 및 校

에 따라 적극적으로 적을 공격하거나 전투를 회피하는 것이 天時를 따르는 것으로 여겨진다.⁴⁴⁾

뿐만 아니라 『格致彙』 「天勢」 편의 ‘지혜로운 자가 天機의 변화상을 보는 것’과 연결된 ‘審時’나 ‘望氣’ 등의 내용 역시 조선 후기에 저술된 병서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武臣須知』(1809)에는 「望氣」에서 “장수된 자는 반드시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적진의 기를 살펴서 길흉과 허실을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 방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望氣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⁴⁵⁾ 『武備要覽』의 「審時」에서는 징조를 이용하는 점술을 『武備志』에서 인용하고 있다.⁴⁶⁾ 『戎書撮要』에는 『武備要覽』 「天時」에서도 인용되었던 五行相勝에 따른 술수적인 내용이 「天氣克制」에 실려 있는데,⁴⁷⁾ 「天氣克制」은 望氣를 통해 파악되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이제마가 『格致彙』 「天勢」와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언급하는 “天勢”와 “天機” 및 “天時”가 「지풍조」와 『武備志』를 비롯하여 『武臣須知』와 『武備要覽』 및 『戎書撮要』 등의 19세기의 조선 병서 및 選擇에 대한 국가공인 텍스트인 『天機大要』에서 널리 언급되던 주제라는 점을 밝혔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하늘”은 술수학의 대상으로서 징조를 드러내는 하늘이며, 전쟁을 비롯한 국가경영 즉 경제의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III. 결론

『東武遺稿』에는 유학자와 의학자로 기억되는 이제마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주제의 글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실제 이제마가 쓴 글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전쟁터에서 바람을 통해 군사적 측면에서의 길흉을 점치는 내용의 「知風兆」 역시 이제마의 글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본고에서는 「知風兆」의 내용이 군사학적인 사상적 배경

을 가진 이제마의 관심사와 일치하며, 2종 병서와의 조문 비교를 통해서 이제마가 『武備志』라는 병서를 읽고 발췌하였음을 밝혔다. 『武備志』는 군사학의 제반 분과 영역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어서, 조선시대 군사학에서 중요한 참고서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제마 역시 조선 후기의 군사학적 전통을 계승하여, 『武備志』를 활용하여 ‘바람을 통한 점술’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마가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을 전개해나가는 시기는, 무신으로 관직에 종사하면서 조선의 군사 개혁에 참여하던 기간과 겹친다. 이제마의 저술인 『格致彙』 「儒略」에서 나타나는 병서 『紀效新書』의 인용과, 군사학을 넘어서는 경제론적 차원의 이제마의 사상과 이론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사상과 저술을 유교 경전과 의학 등으로 한정 짓는 것은 불충분하다.

또한 「지풍조」는 『동무유고』 「천세」 편의 ‘천세’와 ‘천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증을 보여준다. 「지풍조」의 개별적 지식에 대한 연구는 일반화, 추상화되어 『동무유고』 「천세」 편의 ‘천세’와 ‘천기’ 관련 내용으로 이어졌다. 『동무유고』 「천세」 편의 이해를 위해서는 「지풍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동무유고』 「천세」 편은 이후 『동의수세보원』 「성명론」의 ‘천기’ 및 ‘천시’와 연결되어 하나의 고리를 이룬다. 이해가 쉽지 않은 『동무유고』 「천세」 편과 『동의수세보원』 「성명론」의 ‘하늘’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풍조」의 군사학적 점술의 내용이 그 바탕이 된다.

결론적으로 『東武遺稿·知風兆』를 통해 그의 사상적 배경 중 일부가 군사학이라는 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제마의 저술 속에 군사학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 과제이다.

이제마의 군사학적인 사상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그 동안 의학과 유학이라는 틀에 갇혀 바라보던 이제마의 의학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새로운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釋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93.에서 재인용. 『戎書撮要』와 『虎鈴經』 원문이 서로 다른 구절이 있는데 『武備要覽』의 원문을 따랐고, 표점 및 번역은 일부 수정.

44) 五行相勝을 이용한 구절을 하나만 인용해보면 “적의 위에 나타난 승기가 흠 돈대처럼 노랗다면, 토일(土日) 금시(金時)에는 안 되고, 금일(金日) 토시(土時)에도 안 되며, 토일(土日) 목시(木時)에 동쪽에서 공격하는 것이 이롭다. 황색은 토(土)이고, 돈대도 또한 토(土)이다.(敵之勝氣, 黃如土臺者, 土日金時不可也, 金日土時不可也, 土日木時, 利自東方擊之. 黃, 土也, 臺亦土也.)”과 같다. 許洞. 『虎鈴經』 「料用天氣」. 허순영. 『虎鈴經』 試論 및 校釋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93-94.에서 재인용. 『武備要覽』과 『虎鈴經』 원문이 서로 다른 구절이 있는데 『武備要覽』의 원문을 따랐고, 표점 및 번역은 일부 수정.

45) 이정집, 이적 저. 성백효 역주. 『武臣須知』, 서울: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125-126. 288.

46) 『武備要覽』 「審時」는 마지막 한 단락을 『舊唐書』 卷133에서 인용한 것 외에 모두 『武備志』 卷九十八. 軍資乘. 戰三. 「審時」에서 발췌하여 인용한 것이다.

4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戎書撮要』 卷之五. 「天時」. 49-50. (청구기호 한古朝76-34).

참고문헌

1. 손무 원저. 박일봉 편저. 『일봉 손자병법(개정판)』. 서울:육문사. 2011.
2. 이제마 저. 이창일 역주. 『東武遺稿』. 서울:청계. 1999.
3. 장자 저. 안동림 역주. 『莊子』. 개정판 8쇄. 서울:현암사. 2005.
4. 茅元儀. 『武備志』. 明 天啓元年 初刻本. 규장각 소장.
5. 茅元儀. 『武備志』. 明 天啓元年 初刻本.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영인. 北京大學圖書館 소장.
6. 李克家. 『戎事類占』. 明抄本.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영인. 北京大學圖書館 소장.
7. 李靖. 『太白兵備統宗寶鑑』. 重抄本. Harvard Yenching Library 소장.
8. 노영구. 「조선후기 漢城에서의 閱武시행과 그 의미 -大閱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008;32(32):1-34.
9. 홍석철, 고병희, 송일병. 「동무년표제작을 위한 동무유고의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1996;2(1):255-268.
10. 王麗華. 「《武備志》 四种清版述略」. 圖書館理論與實踐. 2007;2007(4):72-73.
11. 趙娜. 「茅元儀 《武備志》 研究」. 華中師範大學 博士論文. 2013.
12. 왕실 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1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14. 네이버캐스트. 지구과학산책. <<https://terms.naver.com>>
15. 서울역사박물관. <<http://www.museum.seoul.kr>>
16.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main.do>>
17. 한국고전종합DB.
18. 김원모. 「[자료]병인일기의 연구」. 사학지. 1983;17(1):193-232.
19. 이제마 저. 박대식 역주. 『格致藁』. 성남:청계출판사. 2000.
20. 이제마 저. 이창일 역주. 『東武遺稿』. 서울:청계. 1999.
21. 게이. 『韓英字典한영사전(A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Kelly & Walsh. 1897.
22. 이수동. 「조선시대 陰陽科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208.
23. 김만태. 「역서(曆書)류를 통해 본 태일문화의 변화」. 민속학연구. 2007;20:5-27.
24. 이현주. 「병인양요 직전 姜瑋의 禦洋策」. 한국사연구. 2004;124:101-142.

부록

표 1. 「知風兆」 필사 과정 오류 수정 사항

조문	필사 오류	수정
1	來	聚
3	凡風天之候	凡大風之候
3	撓	搖
4	千鳥	雞
5	無處風	無風處
6	淸	晴
8	先凶	吉凶
9	拔屋	發屋
14	者	者爲
18	讓	諺
19	知	如
19	拔	發
21	拔	發
21	睡	眊
28	賊	敵
30	勢	熱
32	陽	暘
37	未	來
38	日	次
40	護	獲
45	賊	敵
45	隨歸	惰歸
46	日	-

표 2. 「知風兆」 판독본 오류 수정 사항

조문	판독본 오류	수정
1	晦	曄
5	中	十
18	晦	曄
25	歛	歛
26	挽	攪
32	煥	燠
37	統	結
38	變	突
41	日	曰

표 3. 「知風兆」 필사 과정 누락

조문	누락
2	五千里
4	鳥銜
4	動
4	竿上
45	生